

대륙의 장막을 헤치고 (2)

배 순 덕

북단(復旦)대학에 들어서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뚱뚱한 몸매에 반쯤 벗겨진 이마, 더불단추가 달린 코트차림으로 뒷짐을 진 채 길 건너쪽 도서관 건물을 향하여 우뚝 서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모택동의 동상이다.

1949년, 수 백만 인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모택동의 해방인민군은 북경에 입성 하였다. 당시만 해도 중국 인민들에게 있어 모택동은 꿈이요, 희망이었다. 열강의 지배와 오랜 내전으로 인해 피폐해진 나라를 그가 다시 재건해 줄 수 있으리라

는 희망.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가 이끄는 혁명군대를 열렬히 환영했다.

그리고 모택동은 과거 수 세기를 백성들 위에 군림해 온 황제들의 성 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였다. 그것은 곧 모택동의 인민해방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 주석의 동상이 북경에서 멀리 떨어진 상해의 한 대학의 심장부에 우뚝 섰다 오 가는 사람들을 굽어보고 있다.

모택동 동상 주변에 잘 정돈된 잔디와

넓은 캠퍼스, 깨끗해 보이는 건물. 나무가 많은 탓인지 강의실은 모두 우거진 숲 속에 앉아있는 것같이 보였다. 상해가 자랑하는 일류대학이라는데, 적어도 외모상으로 흠 잡을만한 것이 없어 보였다.

일행과 함께 한 바퀴를 돌아 처음 들어갔던 정문으로 다시 걸어 나왔다. 정적이 감돌던 교정과는 달리 정문은 보수공사가 한창이라 어수선하였고, 그곳을 나서니 바로 자전거와 차가 다니는 대로가 있었다.

그 길 건너편에는 도서관 건물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과 또 다른 강의실이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다. 복단대학의 캠퍼스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분되어 있는 셈이다.

뒤 늦게 소식을 들은 학교관계자가 혈레벌떡 뛰어 나왔다. 미리 얘기가 있었던 듯하다. 그가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빠르게 도착한 것인데 미안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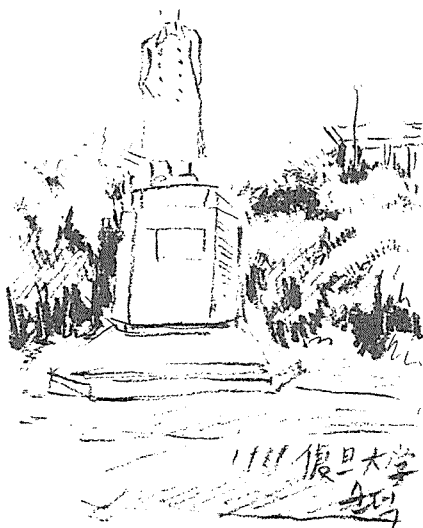
으나 그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들이 누구인가?

역사를 거슬러 보면 늘 우리의 우위에 있었던 나라. 대국이라고 자부하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자신들을 올려 놓았던 민족성. 그래서 국호도 중화(中華)라고 꺼리낌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선블리 고개를 숙일 사람들이 아닌데 친절하다는 건 그 만큼 우리의 국력이 커졌다는 증거이다. 그것은 생각만해도 기분좋은 일이긴 하다. 말은 하지 않았어도 일행의 가슴 속에도 우쭐하는 기분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한순간 우쭐해진 기분으로 그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그의 표정은 조금 전의 태도와는 달리 굳어 있었다. 달라진 그의 얼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세계는 넓고 넘어야 할 장벽은 수 없이 많은데, 선부른 우월감의 과시는 오히려 비천한 것이며 해악적(害





惡的) 요소라고 누군가가 말했었다.

그래,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것도 비천하지만 터무니없는 우월감의 과시 역시 열등 의식의 발로라는데, 지금 우리의 GNP가 그들보다 다소 높다고 해서 선불리 그들을 평가하려 들었던 우리는 하마터면 열등할 뻔 했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도 그 학교관계자라는 사람의 말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직 방학 중이라 함께 대화할 교수나 학생들이 없어 안타깝다며 여기저기 학교 시설을 안내하고, 특징을 설명하고 학교의 연혁 등을 얘기해줬다.

의례적인 설명에 흥미가 없어진 나는, 일행을 빠져 나왔다. 도서관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니 상해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학교주변으로는 고만고만한 길은 회색의 작은 기와들을 포개듯이 촘촘히 엮은

단층집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널찍한 기와와 알록달록 현란하게 치장을 한 우리와 비교가 되었다.

확일과 자유로움의 차이라고나 할까. 그들의 건물은 획일적이거나 전체가 하나로 모여 목적한 도시의 인상을 만들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하나가 개성이 강한 자유로움 대신에 어찌보면 산만해 보이기까지 하다.

집을 짓는 방법도 사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가? 검은색 기와집의 맞은 편에는 또 다시 붉은색 기와를 엮은 똑 같은 집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돈이 되어 있다. 그리고 더 멀리로는 아파트 같은 현대식 고층건물들이 숲을 이뤘다. 겉으로 보기에든 상해는 이미 우리가 상상해왔던 폐쇄된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만은 아닌듯 했다.

도서관 건물을 돌아나오다가 한 여학생을 만났다. 단발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흰 샌들을 신었다. 앞서 상해시내에서 보았던(반바지나 치마에 흰 옷을 입고 샌들이나 운동화를 신었던) 사람들과 비슷한 차림이었으나 훨씬 세련되어 보였다.

이마와 목덜미에 숨털이 보송보송하고 표정이 해맑아 보이는 그 학생을 보니 사람을 못 만났던 터에 반가움이 앞섰다. 복단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자 조금 놀라는 눈치이더니 이내 반갑다고 했다.

이것저것 묻고 대답하고 헤어지던 중 그 학생더러 예쁘고 귀엽다고 말해줬더니, 칭찬해 주니까 당신이 더 예뻐 보인다고 응수해 와서 함께 웃었다. 유모어 뿐만 아니라 영어도 의외로 유창했다.

버스나 길가에서 만난 젊은 사람들과도 영어로 대화가 조금씩은 통했다. 서울에서 사 보았던 중국여행가이드 책에는 ‘중국에는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말이 꼭 맞는건 아니었다.

상해에는 서점이 많지 않다. 시내구경을 하는 동안 차장 밖으로 여기저기 눈여겨 보았으나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다. 가이 드인 왕여사에게 물어 보았더니 신화서점(神化書店)이라고, 상해시내에서는 가장 큰 서점이라며 가르쳐 주었다.

서울을 떠나기 전부터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림책이었다. 괜찮다면 몇권쯤은 사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림서적을 취급하는 곳은 신화서점 이층에 있었다. 이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로 계단과 연결된 통로 끝 코너에 있는데 인쇄된 그림(주로 서양화)을 비닐로 싸서 계단벽에 덕지덕지 붙이거나 걸어놓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살펴보았다. 책을 사고 싶은 사람은 먼저 진열장 속의 책 표시와 제목 등을 눈으로 살펴보고 마음에 들면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본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점원에게 가면 점원이 책꽂이에서 진열장에서와 같은 책을 꺼내주는 것이다.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책을 산다는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 볼 요량으로 점원을 불렀다. 점원은 정말 무뚝뚝 했다. 사람들이 유리진열장 앞에 여러명 서 있는데도 전혀 서두르는 법이 없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자기가 맡은 일을 규칙적으로 했다.

그것이 중국인 특유의 여유일 수도 있

고, 대륙적인 완만한 기질 탓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의 활기찬 생활에 익숙해진 나로서는 다소 답답하고 불친절하게 보였다.

몇번을 부르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용케도 눈이 마주쳤다. 내용을 훑어 보고 나서 사고 싶으니 책을 좀 꺼내 달라고 하자 한마디로 안된다고 한다. 책 표지만 보고 어떻게 책을 고르겠느냐고 다시 물었으나 점원은 이내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 그림 가격은 얼마냐고 했더니 무엇이라 대답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알아 들을 못했다.

두어번 더 물어보자 귀찮다는 듯이 탄전을 피웠다. 무안하기도 하고 해서, “할 수 없다. 매장이나 한바퀴 돌며 이것저것 구경이나 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이층은 일층보다 규모가 작고, 옥이나 상아도장 같은 기념품을 취급하는 코너도 있었다. 책은 거의가 중국 국내의 출판물이었으나 딱 한군데 외국서적을 취급하는 곳이 있었다. 그것은 일본어로 된 서적 판매대였다. 그것도 가판대처럼 아주 자유롭게 꺼내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다가서자 일본인으로 착각을 했는지 점원은 일본말로 인사도 한다. 조금 전의 그 광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이와 유사한 일은 그 후로도 중국을 여행하는 동안 여러번 있었는데 우리의 한시대에도 있었던 낯설지 않은 역사의 아이러니에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들었다. ㉔

〈필자=화가. 호는 창랑(滄浪)〉